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04 [42~45]

(가)

이 몸이 쓸데 업서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貧賤)을 낙을 삼아  
일간모옥(一間茅屋)을 산수간(山水間)에 지어 두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먹으나 못 먹으나  
십년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분별이 없어저니 시름인들 있을소냐  
만사를 다 잊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하다

〈중략〉

삼산(三山)이 어드메요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무심(無心)한 구름은 취수(翠岫)\*에 걸려 있고  
유의(有意)한 갈매기는 백사(白沙)에 버려 있다  
아침에 깨운 취를 점심에 다 먹으니  
일없이 노닐면서 석조(夕釣)를 말녀 하야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마의(麻衣)를 님의차고  
낙대를 둘러메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느니 고기로다  
은린옥척(銀鱗玉尺)을 버들 움에 꿰어들고  
낙조강호(落照江湖)로 적막히 돌아오며  
산가촌적(山歌村笛)을 어부사(漁父詞)로 화답하니  
서호매학(西湖梅鶴)\*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曾點詠歸)야 이에서 더할소냐  
기산영천(箕山穎川)에 소허(巢許)\*의 몸이 되야  
천사(千駟)\*를 냉소하니 만중(萬鍾)\*이 초개(草芥)\*로다  
① 내 살림살이 담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작자 미상, 「낙빈가」-

- \* 취수: 숲이 우거져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
- \* 서호매학: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
- \* 소허: 요임금 시절 부귀공명을 멀리하며 살았던 인물들.
- \* 천사: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을 비유한 말.
- \* 만중: 많은 녹봉.
- \* 초개: 지푸라기.

(나)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얹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 만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여덟 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나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葵亭)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의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울연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귀나 살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조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못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혜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沈休文)이나 사마군실(史馬君實)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조위, 「규정기」-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언어유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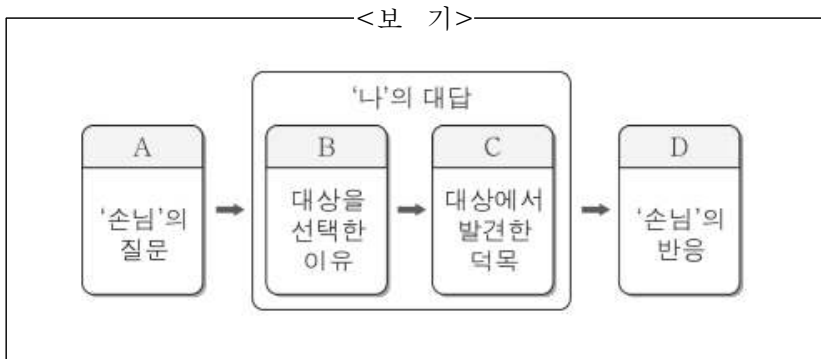
[3점]

<보 기>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이 몸이 쓸데 업서'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산수간'에서 '만사를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연으로 돌아온 화자의 만족감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아침에 깨운 취'를 먹으며 '일없이 노닐'고 있는 것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3. <보기>는 (나)의 '정자 이름에 대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나'가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 ②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③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않은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C에서 '나'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 지어 '손님'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⑤ D에서 '손님'은, A에서 가졌던 정자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성상'과의, ㉡은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성상'의, ㉡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다.
- ④ ㉠은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하지만, ㉡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보기>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작품에 드러난 ‘귀거래 의식’, 즉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가려는 의식에 집중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소박한 삶을 살며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가 등장할 것입니다.

(가)

이 몸이 쓸데 업서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貧賤)을 낙을 삼아  
일간모옥(一間茅屋)을 산수간(山水間)에 지어 두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먹으나 못 먹으나  
십년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분별이 없어거나 시름인들 있을소냐  
만사를 다 잊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하다

(중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이 쓸데가 없어 임금에게 버림받았다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벼슬길을 하직하여 부유한 생활을 그만두고 가난함을 낙으로 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산 속에서 속세를 벗어나 만사를 다 잊고 한가한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귀거래 의식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삼산(三山)이 어드메요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무심(無心)한 구름은 취수(翠岫)\*에 걸려 있고  
유의(有意)한 갈매기는 백사(白沙)에 버려 있다  
\* 취수: 숲이 우거져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중국의 삼산과 환상 속의 무릉이 이곳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름이 산에 걸려있고 갈매기가 백사장에서 보이는 자연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운 취를 점심에 다 먹으니  
일없이 노닐면서 석조(夕釣)를 말녀 하야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마의(麻衣)를 님의차고  
낙대를 둘러메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느니 고기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아침에 깨운 취나물을 점심에 다 먹은 화자는 할 일 없이 느긋하게 노닐면서 저녁을 맞이합니다. 갈건을 쓰고 마의를 입은 화자가 낚싯대를 둘러메고 조대로 나가자 흐르는 물결과 뛰노는 고기가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기>에 등장한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은린옥척(銀鱗玉尺)을 버들 움에 꿰어들고  
낙조강호(落照江湖)로 적막히 돌아오며  
산가촌적(山歌村笛)을 어부사(漁父詞)로 화답하니  
서호매학(西湖梅鶴)\*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曾點詠歸)야 이에서 더할소냐  
기산영천(箕山潁川)에 소허(巢許)\*의 몸이 되어  
천사(千駟)\*를 냉소하니 만중(萬鍾)\*이 초개(草芥)\*로다  
내 살림살이 담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 작자 미상, 「낙빈가」-

- \* 서호매학: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
- \* 소허: 요임금 시절 부귀공명을 멀리하며 살았던 인물들.
- \* 천사: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을 비유한 말.
- \* 만중: 많은 녹봉.
- \* 초개: 지푸라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자신이 비록 ‘서호매학’에는 겨루지 못하더라도 ‘증점영귀’에는 겨룰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산영천에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니 만중이 초개’라는 것 또한 <보기>에서 말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간다면 좋을 부분이 있어 따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호매학’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에는 비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을 보았을 때 ‘서호매학’은 뜻풀이가 등장하지만, ‘증점영귀’는 뜻풀이가 없습니다. 이는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문맥상 적당히 해석하고 넘겨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뜻풀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점영귀’의 뜻을 해석하는데 골머리를 썩을 필요 없이 시의 분위기상 자연을 즐긴다는 단어로 추론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작품 총평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 집중하여 읽는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강호한정가 류의 시들은 대부분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같은 소박하지만 자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점 또한 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얹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 만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여덟 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나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葵亭)이라고 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작품의 화자는 의주로 귀양을 오게 된 상황임을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이 좁아서 덥다고 더웠던 화자는 채소밭에 정자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이름을 ‘규정’으로 짓는데, 여기서 ‘규’는 해바라기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정자 주변에 많던 해바라기를 보고 ‘해바라기 정자’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이렇게 ‘해바라기 정자’를 지은 화자에게 손님이 어찌서 다른 좋은 식물들을 놔두고 해바라기를 이름 짓는데 사용했는지 질문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수필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의 의문점을 통해 작자의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이 등장할 것임을 예측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의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울연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 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앞에서 말한 통념을 반박하는 화자의 대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해바라기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식물임을 드러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화자는 유배를 온 자신의 처지 또한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세상에 우뚝 서서 명성과 덕망이 뛰어난 것 같은 식물로 정자의 이름을 짓게 된다면 식물들의 수치이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가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첫 번째 근거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귀나 살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조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



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굳이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못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혜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정자 이름을 해바라기로 지은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세상에 버릴 물건과 재주는 없다며 해바라기 또한 비록 하찮은 식물이지만 버려질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드러냅니다. 또한, 해바라기의 두 가지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해를 따라 기울어지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두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훌륭한 점으로는 분수를 지켜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며 충성과 지혜를 갖춘 해바라기가 남의 신하된 덕목을 지키는 식물임을 드러냅니다. 하찮게 여기던 식물의 새로운 가치를 화자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沈休文)이나 사마군실(史馬君實)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 조위, 「규정기」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지만 이렇게 자고 먹고 하는 것조차 임금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귀양을 가서도 충성을 잃지 않는 유학자들의 유교적 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해바라기 정자를 이름지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를 납득하여 깨달음을 수용하는 ‘손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수필이 마무리됩니다.

#작품 총평

수필의 특성에 주의하며 읽었다면 내용 파악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수필에서 드러나는 통념을 가진 인물의 등장과 이를 깨는 저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수필에서는 해바라기는 하찮은 식물이라는 통념을 가진 인물과 이를 깨는 저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며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표현하고 있고, (나) 또한 자신이 해바라기 정자로 이름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역설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언어유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회화화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언어유희가 드러나지 않으며, 대상의 속성을 회화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는 자연을 즐기는 시이며, (나)는 해바라기 정자로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수필입니다.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대상의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회화화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서호매학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야 이에서 더할쏘냐’라며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자연을 즐길 것이 증점영귀만 못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나)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못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라며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야’와 같은 부르는 말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고, 대상과의 친밀감 또한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해당 선지에서 헛갈렸다면 (가)에서는 자연물들과의 친밀감이, (나)에서는 해바라기와의 친밀감이 드러난다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의 대상의 관계는 친밀감보다는 예찬의 대상이나 화자가 보기에 가치있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명령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가)와 (나) 시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칭찬을 하는 시이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이 몸이 쓸데 업서'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이 몸이 쓸데 업서' 임금에게 버림받았다는 부분과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으로 삼아 초가집을 산에 지었다는 부분을 통해 정치 현실에서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② '산수간'에서 '만사를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산수간'에서 '만사를 다 잊'은 것은 속세를 떠나 속세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한 화자의 모습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속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③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연으로 돌아온 화자의 만족감을 짐작할 수 있군.

→ '여기가 도교의 이상향인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가 속세에서 자연으로 돌아온 것을 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④ '아침에 깨운 취'를 먹으며 '일없이 노닐'고 있는 것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아침에 깨운 취'를 먹는 화자의 모습에서 산나물을 먹는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없이 노닐'고 있는 것에서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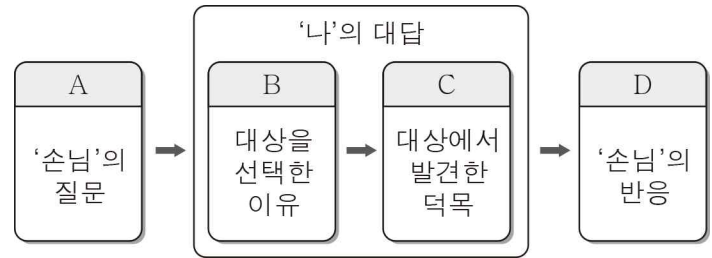
⑤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 '소허의 몸'이 되어 속세를 잊고 자연에 과묵히 살아가는 화자는 '천사를 냉소'하며 호화로운 삶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연에 만족하고 속세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속세에 미련이 남아 자신의 뜻을 알아주길 바라는 태도로는 볼 수 없습니다.

3. <보기>는 (나)의 '정자 이름에 대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보 기>



①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나'가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 A에서 '손님'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옛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를 '하찮은 식물'로 평하며 가치 있는 식물들과 대비되는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②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 '나' 또한 해바라기가 보잘것없는 식물임에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유배와서 타인에게 무시받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임을 밝힙니다.

④ C에서 '나'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 지어 '손님'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C에서 '나'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충성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손님'이 해바라기가 하찮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D에서 '손님'은, A에서 가졌던 정자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 D에서 '손님'은 A에서 하찮은 해바라기로 지은 이유가 있느냐 물었던 것이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내
- ㉡ 나

① ㉠은 '성상'과의, ㉡은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에서는 '성상'과의 갈등 해소와 가치관의 변화가 아닌 단순히 자연으로 들어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드러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에서는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라며 유교적 이념이 드러날 뿐, 갈등 해소와 가치관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은 '성상'의, ㉡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은 '성상'의 입장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계를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화자는 '성상'과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에서도 '임금님'의 입장 변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라며 충성을 드러낼 뿐, '임금님'의 작품 내부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감 또한 ㉠, ㉡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은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다.

→ ㉠은 '성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성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 글쓴이는 자신이 귀양 와서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모두 '임금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④ ㉠은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은 '성상'에 대한 이야기가 1행의 '성상이 버리시니'로 끝납니다. 더 이상 '성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감사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 '임금님'의 은혜로 자고 먹고 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 ㉠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하지만, ㉡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은 '성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을 버렸다는 내용 하나뿐입니다. ㉠은 '성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몸이 쓸데 없어 성상이 버리시니'밖에 없기 때문에 '성상'을 비난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화자는 자연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속세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은 '임금님'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자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바라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